

순천만국가정원 100만명 조기 돌파...지역경제 견인

단체 관람 벗어난 가족 여행객 급증
전년대비 외국인 방문객 50% 증가
가든명·가든 피크닉 등 폭발적 호응
'경험하고 체류하는 공간' 전략 적극

순천만국가정원이 특화 콘텐츠를 앞세워 올해 누적 관람객 100만명을 조기 돌파하며, 대한민국 대표 생태 관광지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23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순천만 국가정원을 찾은 올해 누적 관람객이 100만명을 넘어섰으며, 지난해 대비 4일 앞선 기록을 달성했다.

관람객 구성의 경우 과거 대형 버스를 이용한 단체 중심에서 벗어나 가족 단위 개별 여행객이 눈에 띄게 급증했으며, 중국 크루즈 관광객을 비

롯해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방문객이 지난해 동 기간 대비 약 50% 증가한 9천여명에 달했다.

이 같은 흥행 질주는 단순한 화제 관람 위주에서 벗어나 정원을 '경험하고 체류하는 공간'으로 재해석한 맞춤형 특화 전략이 적중했다는 평가다.

시는 기존 공간을 새롭게 해석하고 밀도 높은 문화 행사를 결합해 관람객의 체류 시간을 대폭 늘렸다.

특히 짙은 녹음과 물소리가 어우러진 개울길 정원에서는 휴식을 취하는 '가든명' 프로그램이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으며, 스페이스허브 일원에서는 '가든 피크닉'에 재즈 공연이 더해져 관람객들에게 깊은 만족감을 선사했다.

아울러 화려한 틀림이 만개한 네덜란드 정원에서는 체험과 사진 촬영, 드로잉을 결합한 '틀림 왔나 봄' 복합 행사를 운영해 큰 인기를 끌었으며, 이색적인 정원 경험은 인스타그램과 페이

스북 등 주요 SNS를 통해 자발적으로 확산되며 막강한 홍보 효과를 창출했다.

또한 축제 기간 10만여명이 넘는 인파가 순천 시내 시내 식당·카페·숙박시설 등을 이용하며, 순천만국가정원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엔진으로 자리잡았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시는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정원 콘텐츠를 한층 다채롭게 진화시킬 전망이다.

프랑스정원에서 열리는 공주·왕자 축제를 비롯해 스페이스허브의 별빛 세레나데 캔들라이트 공연, 정원 전역을 무대로 한 흠뻑쇼 러닝, 르무통 산책회, 바비큐 치맥 축제, 야구 열정응원단 등 문화와 이벤트가 융합된 입체적인 프로그램이 연이어 펼쳐진다.

순천만국가정원 관계자는 "순천만국가정원은 이제 단순히 꽃을 보는 공간을 넘어, 머물고 경험하며 감정을 공유하는 복합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절과 공간의 특성



순천만국가정원 내 노을정원에서 관광객들이 풍경과 함께 공연을 감상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을 살린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핵심 거점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를 대표하는 글로벌 정원 관광지이자 지역경제를 고 말했다. /순천=양홍렬 기자



최근 개최된 '2026 집중안전점검 교통안전 캠페인'에서 보성군 관계자 등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보성군 제공)

보성군, 교통문화지수 개선 전국 1위 쾌거

국도교통부 평가 A등급 도약

정지선·속도 준수 100% 달성

보성군이 국가 단위 교통문화지수 평가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개선율을 기록하며 선진 교통 도시로 도약했다.

23일 보성군에 따르면 최근 경북 상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열린 '2025년 교통문화지수 우수 및 개선 지자체 시상식'에서 개선 지방정부 부문 전국 1위를 차지해 국도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군은 2025년 평가에서 종합 점수 837점을 획득하며 전국 7위, 최고 등급인 A등급에 진입했다. 이는 2024년 78.48점, 전국 49위(C등급)에 머물렀던 것에 비해 1년 만에 지표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린 성과다.

세부 지표에서도 눈에 띄는 발전이 확인됐다. 운전행태 부문에서 횡단보도 정지선과 제한속도 준수율이 각각 100%를 달성했다.

또한 이륜차 안전도 착용률은 64.41%에서 95%로, 방향지시등 점등률은 82.58%에서 96.52%로 크게 올랐으며, 보행 중 스마트폰 미사용 준수율 역시 73.33%에서 81.82%로 개선되며 안

전 문화 정착을 입증했다.

이밖에 행정적 대응 관련해 교통안전 전문성 지표를 0.88에서 1.58점으로 끌어올렸고, 사업용 차량 안전관리 수준도 1.03점에서 1.75점으로 개선했다. 이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통안전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며 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한 점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보성군 관계자는 "철저히 교통법규를 준수해 주신 군민들의 높은 안전의식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성숙한 교통문화가 완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성=임병연 기자

장흥군, 봄철 지역 축제·행사 안전관리 총력

제2회 안전관리실무회 개최

장흥군은 지역 내 다중 인파가 집중되는 봄철 대형 축제와 행사를 앞두고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공조를 통한 총합력 현장 밀착형 안전관 구축에 나섰다.

23일 장흥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장흥경찰서, 장흥소방서 등 핵심 유관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2회 안전관리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번 회의는 행사철 다중 밀집 행사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잠재적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다가오는 '제2회 정남진 장흥 키조개 축제' 등 지역 주요 행사별 세부 현장 위험요인을 면밀히 분석했다.

행사장 특성을 고려한 해상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기상 악화나 시설물 이상 등 돌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 및 합동 대응 체계를 꼼꼼히 점검했다.

노영환 장흥군수 권한대행은 "대규모 군민과 관광객이 몰리는 축제인 만큼 철저한 현장 중심



의 사전 준비가 최우선"이라며 "유관기관과의 굳건한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는 안전한 축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장흥=노형록 기자

고흥군 '블루마린 자전거 여행' 거금도 달린다

오는 26일 라이더 400명 참가

참가비 전액 지역상품권 환급

고흥군이 거금도의 수려한 해안 절경을 배경으로 달리는 친환경 자전거 행사를 개최한다.

23일 고흥군에 따르면 오는 26일 거금도 일원에서 전국 각지의 라이더 400여명이 참가하는 '2026 고흥 블루마린 자전거 여행'을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당일 기념품출발 출발해 탁 트인 거금도 해안도로 40km를 일주하게 된다. <사진> 군은 봄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끽할 수 있

도록 개최 시기를 새롭게 조정했으며, 거금유계소 일원에 블루마린 브랜드를 상징하는 자전거 테마 포토존을 조성해 관광 인프라를 대폭 확충했다.

특히 참가비 전액을 고흥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상생 경제 선순환 구조를 다졌다.

아울러 행사 전날 녹동항 드론쇼를 시작으로 스탬프 챌리, 유자리만 시식 등 지역 특산물과 연계한 다채로운 체험형 부대행사도 함께 마련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블루마린 자전거 여행을



고흥을 대표하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관광 브랜드로 육성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성학 기자

곡성군, 가정의 달 맞이 문화축제 '풍성'

내달 2-5일 정원 음악회 등

초등생 대상 무료입장 제공

곡성군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자연과 문화, 체험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가족 단위 관광 축제를 연이어 개최하며 관광객을 맞이한다.

23일 곡성군에 따르면 다음 달 2-3일 이틀간 동화정원 일원에서 '봄의 멜로디' 음악회를 열고, 3일부터 5일까지는 삼진강기차마을에서 어린이날 특별 이벤트 '기차마을 대탐험! 하이 편별론 페스티벌'을 운영한다.

동화정원 음악회는 싱그러운 초록빛 밑발 풍경을 배경으로 오후 1시부터 펼쳐진다. 가수 김경록(V.O.S)과 국악 퓨전 밴드 등이 무대에 오

르며 화려한 만들기, 꽃차 시음 등 다채로운 감성 체험이 마련돼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휴식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어 기차마을에서 열리는 별론 페스티벌은 어린이 뮤지컬, 디즈니 OST 콘서트, 마술·버블쇼 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잔디광장에서는 에어바운스, 애완세 교감 등 이색 체험 부스가 운영되며, 특히 5일 어린이날 당일에는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기차마을 무료입장 혜택을 제공해 가족 단위 방문객의 발길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동화정원의 아름다운 밑발에서 음악을 즐기고, 기차마을에서 아이들과 함께 잊지 못할 특별한 봄날의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곡성=김영필 기자



담양읍, 대나무축제 맞이 환경정화 '구슬땀'

담양군은 "최근 담양읍과 군 공간재생과 직원, 지역 주민 등 20여명이 참여해 하천 주변에 방치된 폐기물과 쓰레기를 수거하며 쾌적한 환경 조성에 구슬땀을 흘렸다"고 23일 밝혔다. <사진>

이번 환경 정화 활동은 대나무축제를 앞두고 주요 하천과 관광지 일대에서 대대적인 새봄맞이 단장을 위해 마련됐다.

앞서 담양읍은 본격적인 행사준비를 맞이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시가지 화단을 정비하고, 주요 관광지 곳곳에 사계절 꽃길을 조성

하는 등 아름다운 경관 가꾸기에 힘쓰고 있다. 이를 통해 축제 방문객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담양의 깨끗한 이미지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김종화 담양읍장은 "바쁜 생업에도 자발적으로 정화 활동에 참여해 주신 주민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 정비를 통해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다시 찾고, 머물고 싶은 아름다운 담양읍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화순군, 저온 피해 복숭아 '지연 적과' 당부

영하권 기온 반복 피해 우려

화순군은 최근 지역 내 반복된 이상저온으로 복숭아 냉해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농가에 성급한 일수기(적과)를 지양하고 열매 상태를 충분히 확인한 뒤 실사하는 '지연 적과'를 당부했다.

23일 화순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이달 초 이상저온에 이어 지난 21일 새벽에도 일부 지역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등 냉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센터는 유과기에 접어들어 복숭아의 수량 감소를 막기 위해 선제적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평년의 경우 만개 후 20일경 1차 적과를 시작하지만, 올해는 수정 여부가 불확실한 열매가 많아 성급하게 적과할 경우 착과량이 부족해질 위험이 크다. <사진>

겉보기에 멀쩡해도 내부 피해로 생장이 늦기

나 낙과할 수 있어, 일정 기간 비대 정도를 지켜본 뒤 선별적으로 적과하는 것이 유리하다.

냉해로 수세가 약해진 나무는 엽면시비로 영양을 공급하고 토양 수분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등 영양 관리에도 힘써야 하며,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상단부 열매를 위주로 관리하는 유연한 대응이 요구된다.

최은순 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반복된 저온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적과 시기 조절과 철저한 영양 관리를 병행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이병철 기자

